

교회목표

신앙한 예배
찬양인문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주간 총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복음 때문에 소망이 넘치는 2009년을 향하여!

신년 가족연합예배 1월 1일(1부 9:00/2부 11:00)
2009년 제1차 성찬식 1월 4일(주일 1~5부예배시)

2008년 우리를 두렵게 만들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고, 여전히 위기 한가운데 있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입니다. 특히 2008년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주신 "두려워하지 말라"(창 15:1)는 말씀은 한 해를 살아가는 데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매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며 회개하고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자가를 지고 믿음의 길을 걸었습니다. 악한 영들의 유혹과 위협으로 가끔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십자가를 붙들 때 모든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골 2:15) 이 모든 것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벧전 5:12)

이제 2009년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이 믿음의 실천을 위한 첫 걸음으로 신년 가족연합예배에 꼭 나오십시오. 한 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응시를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신년 가족연합예배 1부는 9:00, 2부는 11:00에 본당에서 드려온 가족은 물론이거니와 주님의 말씀이 필요한 분들과 함께 나오십시오. 또한 2009년 첫 주일예배 시에는 성찬식(1~5부예배)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한 예배가 되도록 기도로 준비한 후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굳게 세워지는 주님의 교회와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의 일꾼으로 부흥하는 2009년을 소망합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시 39:7)

*오늘 찬양예배 시에 2008년 제6차 학습 및 세례식(유아세례는 오후 3시, 갈릴리움)이 있으며, 찬양예배 후에는 2008년 결산 및 2009년 예산을 위한 공동의회(세례교인 전원 참석)가 있습니다.

*중현기도원 이용안내는 본지 7면 참조

1월 교회 일정

- 1일(목) 신년 가족연합예배(1부 9:00/2부 11:00)
- 4일(주) 2009년 제1차 성찬식(1~5부예배 시) 제3차 CMTCC①(선교훈련)
- 7일(수) 정기당회(수요2부예배 후)
- 11일(주) 제3차 CMTCC②(선교훈련)
- 14일(수) 총력 교회주변 전도(수요1부예배 후, 여전도회)
- 17일(토) 총력 교회주변 전도(14:00, 남전도회)
- 18일(주) 제3차 CMTCC③(직무훈련)
- 25일(주) 선교주일

신년예배 메시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로마서 1:1~4)

바울은 로마서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1절)이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바울이 자신의 이름 대신 너무도 적절한 예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음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는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대신에 '그리스도 예수'(NASB 성경 참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 속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는 '메시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에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약속된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알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를 향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영원한 종 즉, 노예라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 기름 부음을 받은 그분이 바울의 절대적인 주인이었습니다. (빌 2:9~11) 바울은 인생의 황금기를 예수님을 대적하며 보냈습니다. 그러나 그가 감당해야 했던 중요한 일들은 그가 태어나기도 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습니다. (갈 1:15~16) 이로 인해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1절)라고 선포합니다.

바울은 복음을 위한 종이다

바울은 로마 교회가 자신에 대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한 종으로 알기를 원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에게 곧 바로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2절) 하나님은 애만동산에서부터 메시아를 보내주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태어나실 메시아이셨습니다. (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고귀하고 가치 있는 선물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후에는 그분의 찬란한 빛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4절) 예수님의 부활이 지닌 영적 능력은 수십억 개의 원자폭탄이 가진 위력보다도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새 시대를 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돌이 뒤편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 막고 있던 장벽이 제거되었습니다. (행 13:32~33) 여러분은 복음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참으로 알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골 1:19~23)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의 능력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고전 15:22)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부활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지금의 세상과 미래의 세상, 그리고 이 세상의 나라와 미래의 나라를 구분해 줍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을 따라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천국을 가능하게 합니다. (로 5:24)

예언된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즉, 주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모두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복음전파가 삶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데 전심전력합시다!

JESUS CHRIST AFTER THE FIRST COMMUNION

⁽²⁶⁾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²⁷⁾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⁴¹⁾"Keep watching and praying that you may not enter into temptation; the spirit is willing, but the flesh is weak." ⁽⁴²⁾He went away again a second tim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this cannot pass away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Matthew 26:26~42)*

Jesus established Communion with His disciples during the Passover meal, "While they were eating, Jesus took some bread, and after a blessing, He broke it and gave it to the disciples, and said, "Take eat; this is My body." And when He had taken a cup and given thanks, He gave it to them, saying, "Drink from it, all of you; for this is My blood of the covenant, which is poured out for many for forgiveness of sins." (vv. 26~28) The first Communion was a preview of the cross for Jesus' disciples, but it is a memory for us. It is a time for us to remember our Savior's death and anticipate His return, "But I say to you, I will not drink of this fruit of the vine from now on until that day when I drink it new with you in My Father's kingdom." (v. 29) Our eventual reunion with all its joy and fellowship will take place with Jesus in heaven. Until that day, Jesus wants us to remember Him in this special way. Let's look at the biblical picture of Jesus that develops following the first Communion to help us further appreciate His sacrifice.

The Bible gives us a picture of a singing Savior, "After singing a hymn, they went out to the Mount of Olives." (v. 30) Jesus sang at His Table that night. After He blessed and thanked God for both the bread and the cup, He sang a hymn. It is believed that the song was one of thanksgiving. Christ's thankfulness during Communion is a mystery of grace. Only those blessed with Christ's love can understand such a beautiful heart. His sincere thankfulness for the coming cross, even with all its pain and suffering, was centered on the availability of salvation to the entire world. When we reach our eternal destination, we will indeed sing a new song, "And they sang a new song, saying, 'Worthy are You to take the book and to break its seals; for You were slain, and purchased for God with Your blood men from every tribe and tongue and peace and nation.'" (Rev. 5:9) Every Communion service should give us a song of praise because Christ paid for us with His precious blood.

The Bible also gives us a picture of a sorrowing Savior, "Then Jesus came with them to a place called

Gethsemane, and said to His disciples, 'Sit here while I go over there and pray.' And He took with Him Peter and the two sons of Zebedee, and began to be grieved and distressed. Then He said to them, 'My Soul is deeply grieved, to the point of death; remain here and keep watch with Me.'" (vv. 36~38) The closeness of the coming cross breaks in on Jesus. He recognizes the pain, shame, and suffering that awaits Him. He understands that He will soon be called to fulfill Isaiah's prophecy, "But He was pierced through for our transgressions, He was crushed for our iniquities; the chastening for our well-being fell upon Him, and by His scourging we are healed." (Is. 53:5) Today some of you may leave this service to face unknown sorrow. You may have to go through what you did not think you would. You may have to go through what you did not think you could. Please remember that Jesus is with us in our sorrow. He understands your sorrowing and He cares deeply for you.

The Bible gives us a picture of a submissive Savior, "He went away again a second time and prayed, saying, 'My Father, if this cannot pass away unless I drink it, Your will be done.'" (v. 42) These beautiful words are some of the most difficult words to pray. We want our will so much of the time that it is hard to pray for God's will. Praying for God's will to be done in your life is a submission to the cross.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uttered such words? How long has it been since you prayed with a submissive heart?

My dear friend, will you leave this Communion table more like Jesus? Will you leave with a song of thanksgiving in your heart for Jesus' love? Will you face your sorrows relying on Jesus' understanding and compassion to see you through? Will you deny yourself, take your cross, and follow Jesus? I wonder what picture of Jesus Christ is developing in you for others to see. Please come to today's Communion with sincerity and seriousness. Examine yourself, repent, and remember Jesus as your Savior. 🙏

첫 성만찬 후의 예수 그리스도

⁽²⁶⁾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²⁷⁾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⁴¹⁾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고

⁽⁴²⁾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마태복음 26:26~42)



김성완 목사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시면서 성만찬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 하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26~28절) 첫 성만찬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십자가 수난에 대한 예고였지만 우리에게는 기념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만찬은 우리 구주의 죽음을 기억하고 그의 재림을 기념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29절) 우리는 큰 기쁨 중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천국에서 예수님과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예수님은 우리가 이 특별한 예식을 통해 예수님을 기념하기를 원하십니다. 첫 성만찬 이후 주님의 발자취를 성경을 통해 살펴 보면서 주님의 희생에 참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찬양하셨다

성경은 찬양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 산으로 나아가니라”(30절) 그날 밤 예수님은 주의 만찬의 자리에서 찬미하셨습니다. 주님은 떡과 잔을 들고 축복하시며 하나님께 감사하신 후에 찬양하셨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감사의 찬양이었을 것이라 믿습니다. 성만찬에서 드러진 그리스도의 감사는 불가사의한 은총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받은 자들만이 그 아름다운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고통과 피로움을 알면서도 임박한 십자가에 대해 주님께서 진정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온 세상을 구원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셨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종착지에 이르게 될 때 참으로 우리가 부를 새 노래는 이것이 될 것입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계 5:9)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 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매 성만찬 때마다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슬퍼하셨다

성경은 또한 슬퍼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에 예수께

서 제자들과 함께 겔새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고”(36~38절) 십자가를 저야 할 때가 가까이 왔다는 사실이 갑자기 예수님을 엄습해왔습니다. 이제 곧 다칠 고통과 수치, 피로움이 가까이 왔음을 주님은 느꼈습니다. 주님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이 곧 부를 받게 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므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사 53:5) 오늘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이 예배를 마치고 나서 예기치 않은 슬픔에 직면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한 번도 생각지 않았던 일을 겪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도저히 자신은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일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슬픔에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슬픔을 이해하시고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첫 성만찬 후에 구주는 순종하셨다

성경은 순종하시는 구주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42절) 이 아름다운 말들은 가장 하기 어려운 기도입니다. 우리는 매우 많은 순간 우리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기도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종입니다. 그러한 기도를 한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지가 참으로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만찬을 마치고 돌아갈 때 예수님을 더 닮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찬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슬픔을 당할 때 여러분을 온전히 아시며 이해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을 의지하지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시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 담겨져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실하고 진진한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하십시오.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며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 없인 안 되는구나!

재앙이로다 나여!

구유에 누이신 아기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의 크리스마스는 구유에 누이사 낫아지신 아기 예수님을 바라보기 보다는 나의 모든 문제를 순서대로 해결해 주실 전지전능한 예수님을 기다리며 세상에 대한 기대뿐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나 교회에 가 예배드리면서 나도 예수님이 오신 걸 기뻐해야지, 기뻐하고 싶다.”라고 소망했지만 내 안에는 죄에 갇힌 나를 위해,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에 대한 참 기쁨과 감사가 없었습니다. ‘베들레헴에 나신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나를 위해 오셨다는 예수님을 향한 막한 기쁨과 감사가 없을까? 다른 사람들도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을까?’라는 의심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다 내 욕심이었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었습니다.

내 삶에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내 생각으로 가득 차서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나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주셨고, 생활하는 가운데 주님과 대화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죄에서 죄로 옮겨다니며 주님을 추이고 있는 저를 발견해 하였고, 착한 척 순종하는 척하는 모습일 뿐 내면 ‘의’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나는 예수님 없인 안 되는구나, 죄밖에 나오지 않는구나,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못했는데 어떻게 사랑할까요? 어떻게 용서하세요? 정말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너무 감사해요. 정말 너무 좋아요.”라는 감사와 기쁨을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인간이 되어 오셨고 구유에 누이신, 이토록 낮아지신 예수님을 닮아가며 이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크리스마스, 나의 삶과 예배 가운데서 더욱 힘껏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 정말 기쁜 크리스마스입니다.

문운미(대학부)

금요찬양집회를 통해 이가서를 접하게 되었다. ‘왜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다. 처음에는 계속되는 책망과 진노와 심판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미가서가 마음에 와 닿지 않았다. 연말연시에, 크리스마스에, 과연 이 말씀이 필요한가를 생각하며 말씀을 들었다. 그러나 미가 선지자를 통한 말씀이 바로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스라엘 백성과 마찬가지로 완악하고 안락하고 배이 다른 사람이 내 자신임을 깨달았다. 좌절당한 하나님의 종 미가, 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단식하였다. “재앙이로다 나여!” 그 재앙은 사실 내 자신으로 시작되었음을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었다.

예루살렘 시장터에서 벌어지는 악한 모습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무법 지대에 살고 있는 모습들,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허를 가진 백성의 모습, 경건해야 할 지도자와 재판관이 뇌물을 구하는 모습들, 거기에 폭력을 휘둘리고 있는 백성의 모습, 자신의 축복을 위해 달려 나가는 백성의 모습,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는 백성의 모습, 미가의 회개하라는 메시지에 냉담한 백성의 모습들을 머리에 그려 본다. 미가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이 내 마음에 울린다. 가슴 아파 부끄러운 그 음성이 바로 나를 향한 음성임을 깨달았다. 외식적이고 이기적이며 세상의 축복을 바라보던 여지없는 죄인인 나 자신을 향한 음성이었다. 위임복 사명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 한 구절이 나의 죄를 확인시키며 외인 한 사람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 안에 도저히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셨다.

하지만 오늘도 이 죄인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소망을 주시는 미가의 말씀이 크리스마스에, 내에게 주시는 메시지임을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게 되었다. 내가 가아할 길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믿음의 길임을 알게 되었다. 회개와 새 소망을 주시는 금요찬양집회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발걸음이 오늘도 힘차다.

방명미(집사, 3교구)

마가복음 강해 51

* 매주 월요일 새벽기도회(새벽 4:40)에서 생생한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지옥 불에 관한 경고

(9:42~50)

지옥을 잘 따르기 위한 방법은 없다. 오직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따르는 것뿐이다.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걸지 못하게 만드는 죄의 유혹은 매산간 도사리고 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지옥 불에 관한 경고를 하셨다. 이것은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기록된 지옥에 관한 말씀이다. 예수님은 죄를 범한 신체의 구체적인 부분을 언급하시며 단호한 행동을 요구하셨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마 9:42)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마 9:47)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 발, 눈이 상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마 9:48)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 고통이 영원하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마 5:29~30, 25:46) 이사가 선지자도 지옥의 모습을 언급하였다. (사 66:24) 예수님은 부자와 저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였다. (눅 16:23)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 받은 지옥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계 20:10)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를 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가져 없이 버려야 한다.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마 9:43)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마 9:45)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마 9:47) 예수님이 이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손, 발, 눈이 상하는 고통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이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마 9:48) 지옥은 가장 고통스러운 곳이다. 그 고통이 영원하기에 더욱 고통스럽다. (마 5:29~30, 25:46) 이사가 선지자도 지옥의 모습을 언급하였다. (사 66:24) 예수님은 부자와 저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지옥의 고통을 설명하였다. (눅 16:23) 사도 요한은 환상 중에 계시 받은 지옥의 모습을 기록하였다. (계 20:10)

지옥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들이 저할 영원한 고통이 있는 형벌의 장소이다. (계 20:14~15)

지옥은 어둡고 비려진 곳이다. 기쁨을 전혀 찾을 수 없는 영원한 고통의 장소이다. 이와 같은 영원한 형벌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없다. 단 하나 있다면 예수님을 믿으며 은총을 받는 방법뿐이다.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마 9:49)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열납되는 정결한 제물을 위해서 소금이 사용되었다. (레 2:13 ; 겔 43:24) 제물이 소금으로 정하게 되듯 사람마다 불로써 정하게 된다. 소금은 복음이다. 소금이 뿌려질 때 나타나는 반응을 통해서 지옥과 천국은 결정된다. (고전 3:13~15) 이때 대담히 중도를 지키는 자들은 반응하지 않을 것이고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복음의 맛을 분명히 드러내야 할 수 있다. (마 5:13) “소금은 좋은 것이므로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마 9:50)

이 세상에 소망을 두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소망해야 한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제자들이나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음에도 그들의 초점은 세상에서의 영광이었다.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지만 제자들과 우리는 여전히 한 생각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가? 세상에서 누릴 부와 영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를 무시하고 있지 않은가?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고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마 8:38)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보자. 그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다. 지옥에 관한 두려움이나 경장보다는 천국의 영광과 기쁨으로 가득할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며 겸손한 십자가의 일꾼들에게 천국의 상을 항상 열려 있다. “피로된 인생 길 가는 몸이 편안히 쉬는 곳 은 … 내 고향 하늘나라.” (찬 479장)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고후 5:17)
송구영신(送舊迎新),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라!**

◇ 2008년에 주님께서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2009년에도 주님과 십자가만이 내 모든 것임을 전하고자 합니다.

주영선(집사, 14교구)

◇ 위암이라는 큰 병을 앓아살림 찬양대, 합창팀이라 찬양대, 교구식구들의 정성어린 기도로 이겨내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다시금 찬송회 하시는 은혜와 진리이신 그리스도께 모든 영광을 돌려 드리고, 2009년 새해에도 기도하며 찬양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신은재(집사, 10교구)

◇ 올 한 해 주님이 베풀어 주신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리며 주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지 못하고 회심을 다하지 못해 너무 죄송합니다. 용서해주세요요, 주님, 사랑합니다. 2009년도에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실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김금숙(집사, 21교구)

◇ 생활의 터전을 옮겨 새로운 교회를 주셨습니다. 진정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온전히 섬기는 2009년도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영철(성도, 15교구)

◇ 2008년은 저에게 아주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직분도 받고 헌금위원으로 봉사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형편상 선교는 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할 수 없는 죄인을 주님은 사랑해 주셨습니다. 교회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지만, '해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는지, 전도는 왜 하라고 하는지?' 이제서야 그 답을 중령교회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처럼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킨다는 것이 요술엔 질실하게 와 닿습니다.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주님이 주신 사랑,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합니다. 이성숙(집사, 1교구)

◇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영육간의 어두운 터널에서 영적인 회복과 건강을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만 집중하여 그분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2009년이 되게 하소서. 오봉준(집사, 11교구)

◇ 여지없이 한 해도 정육에 따라 살았음을 고백하며 자기 부인하여 회개하기 원합니다. 철저한 회개의 삶으로 주 안에서 승리하는 2009년이 되게 하옵소서.

김유자(집사, 6교구)

◇ 십자가 복음의 은총으로 담대한 믿음을 주시는 주님, 금년 한 해도 주님의 은혜와 은총 속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십자가 복음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유유했던 자가 되

어 십자가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형석(집사, 8교구)

◇ 2008년 주님의 은혜 아래 기도예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09년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 안에서 주님을 붙잡고 살게 해주세요. 이자경(집사, 17교구)

◇ 무슨 일이나 어디에 있든 나의 어떤 의지와 노력의 아닌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시는 주님! 2008년도 달력을 보니 어느 날 날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지 않은 날이 없었습니다. 2008년도에도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인도하시며 사용하실지 흥분과 기대가 넘칩니다. 그저 감사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예수님만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시은(집사, 16교구)

◇ 소망의 주님만을 기억하며 바라보게 하셨던 한 해를 보내며 2009년 한 해 더욱 주님만 바라보며 십자가 복음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하소서. 최병일(집사, 5교구)

◇ 2008년 주님께서는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2009년에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주님께만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지은진(집사, 2교구)

◇ 무엇보다 저의 가정에 진정으로 유익한 것이 세상의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하신 2008년도였습니다. 저의 뜻대로가 아닌, 주님의 뜻대로 많은 응답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2009년도 한 해는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종성한 교제를 나누기 원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세월을 아끼며 지혜롭고 정직한 신앙생활을 위해 기도하는 저의 가정과 종현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박홍석(집사, 19교구)

◇ 한 해 동안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늘 회개함으로 날마다 주님 앞에 회복하고 성령으로 거듭나길 기도 드립니다. 오지수(집사, 8교구)

◇ 올 한 해는 특별한 해였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임을 경험하게 하였고, 내 것을 포기하게 하시고 종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의 왕이 되신 주님, 새해에는 선한 목자 예수님의 음성만 듣고 나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한 걸음 한 걸음씩 주님만 따라가게 하소서. 부유자(집사, 21교구)

◇ 아담 같은 저의 삶 속에서 십자가를 발견하는 한 해였습니다. 새해에는 예수님을 이보다 더 사랑하고, 의

지하며, 순종하며 따르기를 원합니다. 최숙연(집사, 15교구)

◇ 한 해를 돌아볼 때 나와 우리 가정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는 가정예배입니다. 여섯 살인 준하, 세 살 박이 윤하 그리고 나와 남편이 드리는 예배. 늦은 귀가로 남편과 함께 하지 못할 때가 많았고, 고단할 땐 그냥 잠자리에 들고 싶은 유혹도 많았지만, 사랑스런 아이들이 예배를 가장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하루도 거르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암송을 했습니다. 이런 아이들과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나를 회복시키셨고, 예수님을 보게 하셨습니다. 또한 앞으로 다가올 한 해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기대합니다. 김경애(집사, 23교구)

◇ 지금까지 부족한 저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머물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2009년도를 맞이하면서 더욱 주의 일에 힘을 짓을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위강순(집사, 7교구)

◇ 늘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낙심한 저를 품고 기도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2009년도에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 중에 견디고 바라보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오준환(집사, 9교구)

◇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었드리지 못해 마음이 아픕니다. 새해에는 더욱 예수님께 집중하길 소망합니다.

이성근(집사, 12교구)

◇ 내 생각, 내 교집, 내 집, 내 자녀, 내 주장으로 죄 속에 함몰이 하던 저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윤선주(집사, 20교구)

◇ 2008년은 구원의 선물을 주신 예수님이 인도하시고 동행해 주신 한 해였습니다. 2009년도에는 죄인인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해정(집사, 22교구)

◇ 깊은 영적인 침체 속에서 나태해진 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지는 나의 모습을 소망해 봅니다.

박민준(집사, 4교구)

◇ 내게 허물과 죄를 깊이 깨닫게 하셨던 한 해가 저물어 갑니다. 회개할 때마다 긍휼히 여기사 용서와 사랑을 인하여 새 힘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부르신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날까지 어디서든지 나의 영혼이 은혜를 입어 갇힌 아기를 같이 신령한 것을 사모하며 맛보며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도와 주소서. 이해자(집사, 23교구)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매일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집착이 된 양 산을 넣고 넣어 마을을 찾았지만, 만나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생활에 지친 표정으로 냉담한 반응을 보였고, 주님을 영접하기를 거절하였다. 그럴 때마다 '왜 우리가 이러한 곳까지 와서 주님을 전하지 않았단 말 되는가?'라는 회의와 낙담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또한 앞으로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막막하기 그지없었다. 그러나 이때, 선교 파송예배 때 주신 말씀이 문득 생각이 났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은과 금보다 더욱 귀중한 구원의 기쁜 소식이 되었는데,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한 톨의 가치고 없는 그냥 지나가는 소리에 불과할 것이다. 예수님을 새 번식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를 향해 긍휼히 여기시며 바라보셨던 예수님의 심정으로 선교지의 영혼들을 대하여 아مان 한다."

나는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돌아보았다. 진정 나는 예수님과 같은 그 긍휼함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저들에게 나아갔는가? 정말로 저들이 구원받아야만 된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가? 결국 영혼에 대한 간절함이 없으니 나의 경험과 오직 복음을 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수님을 영접시켜야만 된다는 초조함으로 저들에게 다가갔던 것을 깨달았다. 나의 이러한 안이하고 형식적인 모습을 지켜보셨을 주님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으로 회개했다. 그렇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그들에게 물질과 삶의 풍요로움을 주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생명을 구원하는 십자가의 복음인 것이다.

저들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작 모르게 이같이 주님의 십자가 복음을 거부할지 모른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들을 불쌍히 주시고 구원하시고자 하는 영혼이라면 반드시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한다. 또한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를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때 역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지 않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생명을 살리는 복음 전파는 오히려 핏과 소리에 불과하며, 성령님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다시 한 번 깊이깊이 깨닫게 되었다. 비록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단 사실과도, 다음에 또 복음을 전하러 오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대해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저들이 거절하지 않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감사하며 만족할 수 있으리라. "주님, 이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라 십자가 복음의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고 추수할 때까지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김하경(잠사, 15교구 4지역팀)

순종의 그릇

작년에 선교를 다녀온 후 육신이 연약하여서 다음 선교는 도저히 생각조차 못했습다. 매일 찬송가 497장 <주 예수 넓은 사랑>을 부르며 선교를 사모하며 기도하고 있던 중 어느 사랑하는 권사님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습니다. 육신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지만 두 번 생각할 겨를도 없이 선교편원에 임하였습니다. 나 같은 죄인이 아니라도 얼마든지 주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실 것이지만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며 주심을 전심으로 감수하겠습니다.

선교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귀하게 여겨지던지 정말 주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임을 확인하며 복음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더운 날씨에 사 가지고 가던 열음이 다 녹아서 물이 되는 줄도 모르고 복음을 들은 어린 소녀가 생각났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몇 바퀴의 짧은 언덕으로 다 전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기에 어린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했음을 잘 믿습니다. 때로는 씨를 뿌려놓고 나지 아니 할까 염려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말씀을 주시며 위로하셨습니다. "그녀가 내 딸 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아니하오니 그 소녀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로 10:18) "이 열심 내 것이 아님을 늘 깨닫게 하시고 언제라도 주님이 명령하실 때 순종하며 파를 수 있는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소서."라고 오늘도 기도합니다.

김세영(잠사, 16교구 6지역팀)

♡ 새 가 족 을 완 영 합 니 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인도자
2007	김경아	24	김재현(24)	2020	김희정	16	대학부	오은정(11)	2033	박성민	24	대학부	박다솔(4)		
2010	김희정	11	대학부	2021	김민지	11	대학부	김민지(1)	2041	김은진	15	대학부	김은진(17)		
2009	김은진	6	대학부	2022	김민지	22	대학부	김민지(2)	2042	김은진	24	대학부	김은진(17)		
2010	최성민	6	대학부	2023	최희정	23	대학부	최희정(1)	2036	이정진	7	고등학교	이정진(37)		
2011	최성민	6	대학부	2024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37	최희정	24	대학부	최희정(4)		
2012	최희정	6	대학부	2025	김희정	18	대학부	김희정(2)	2038	최희정	17	대학부	최희정(14)		
2013	최희정	6	대학부	2026	김희정	18	대학부	김희정(2)	2039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4	최희정	6	대학부	2027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0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5	최희정	13	대학부	2028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1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6	최희정	13	대학부	2029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2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7	최희정	13	대학부	2030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3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8	최희정	13	대학부	2031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4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2019	최희정	13	대학부	2032	김희정	20	대학부	김희정(2)	2045	최희정	25	대학부	최희정(14)		

* 순교교회와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는 분은 본당 2030 새가족 등록카드 오시기 바랍니다.*

청지기칼럼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라!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나는 언제부터인지 막연한 꿈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다. 어린 시절 성경과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들려주시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이적을 행하시기도 하고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 주셨고 마음이 참 착하신 분이셨다.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때문에 참 즐거웠고, 연말 주일학교 시상식과 거의 겹쳐 있어서 상품으로 받은 새 공책을 여러 달 동안 쓰면서 가끔씩 크리스마스를 생각하였다. 책읽기를 좋아했던 나는 아무 책이나 무작위로 읽으면서 자랐고, 기독교에 관한 책을 주로 보게 되었고 기독교 신앙과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자주 갖게 되었다.

믿음은 단순함이다. 잘차나 포장이나 무늬에 있는 것이 아니다. 믿음은 바라보는 데 있다. 내가 무엇을 희망할 때 믿음은 소망처럼 켜켜이 온다. 하나님은 주시는 꿈, 하나님은 주시는 희망, 그것이 믿음이다. 주님의 형상을 믿고 싶다. 정말이지 주님을 개인적으로 좋아한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어떠한 상태일까? 어떻게 해야 할까?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12:2) 말씀하셨다. 바라본다는 말은 생각하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한다는 말인데, 그렇게 하면 주님의 모습을 따라 갈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 그러나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내가 예수님을 존경하고 사랑할 수는 있으나 주님을 닮을 수는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죄인이기 때문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을 열어서 목격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직접 보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놀라운 체험들이 제자들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직접 본다고 해서 믿음을 쌓고 놀라운 경험을 하였다고 해도 내가 변화할 수 있을까? 진정한 변화는 경험이나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에 있다. 성령의 임재는 120명의 은혜이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의 임재는 주님의 제자들을 포함하여 120명을 변화시켰다. 예수하의 부활의 기적이 하지 못한 일을 하나님의 성령이 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행 1:8) 성령께서 나의 영과 혼과 육과 육신을 지배할 때, 내가 온전히 성령의 지배를 받을 때 비로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갈 2:20) 하신 말씀이 현실적으로 적용되며, 자기 부인이 가능해지며,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아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이 생활 가운데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다스리게 될 때, 나의 모든 것을 지배할 때 비로소 나는 주님의 형상을 닮게 된다.

나는 이 땅에서 두 세계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이지만 하나님의 거하신 초초가 되어 갈라다니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자이다. 관건은 성령 임재의 지속성에 있다. 전적으로 타락하여 부패한 성품을 항상 가지고 있는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의 임재는 불가능하고, 내가 나의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임재는 불가능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이에 반응하는 회개는 성령의 임재를 지속시켜 준다. 십자가의 보혈과 죄 사함과 회개는 동일한 범주 안에 있으며, 분리시켜 생각할 수도 없고 이 효력은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유지되며 반복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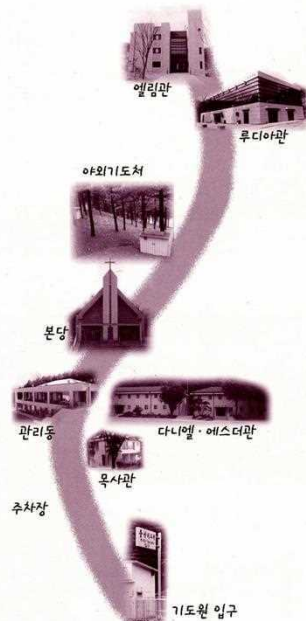
그래서 나는 늘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 주님의 임재를 가장 가까이서 느끼는 때 역시 내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때이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는 은혜요 축복이다. 회개, 성령임재, 주님의 모습,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점진적인 것이지만 항상 동일 선상에 있다. 언젠가는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때 오시는 예수님은 십만주로 오실 것이다. 그러나 나는 십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을 볼 수 있다는 기쁨이 더 크기 때문이다. 때로는 세상의 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여도 때로는 애통하는 슬픔이 있어도 이것들을 지나가는 세상이뿐 뿐이다. 그때까지 주님만 바라보리라. 그때까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 따라가리라. 사랑하는 나의 주님이 직접 오시는 그때까지!



김태호 (장로, 유아부장)

십자가 아래에서 누리는 영혼의 쉼터 '충현기도원'

연말연시(年末年始), 주님의 긴밀한 교제가 더욱 필요한 때이다. 분주한 일상과 문제투성이의 현실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할 수 있는 충현기도원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마 11:28) 최근 개관한 엘리관(콘도식 숙박시설)과 루디아관(다목적 체육시설) 그리고 리모델링을 마친 기도원 전용 숙박시설인 다니엘관·에스터관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



이용문의 및 예약
충현교회 사무국 ☎ 552-8200
충현기도원 ☎ 031-766-5425

예배 및 기도처

본당 매주 화요일(11:00)·금요일(22:30)에 말씀 중심의 집회가 열린다.

소매배설 매일 새벽기도회(6:00)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 야외기도처 자연과 함께 숨쉬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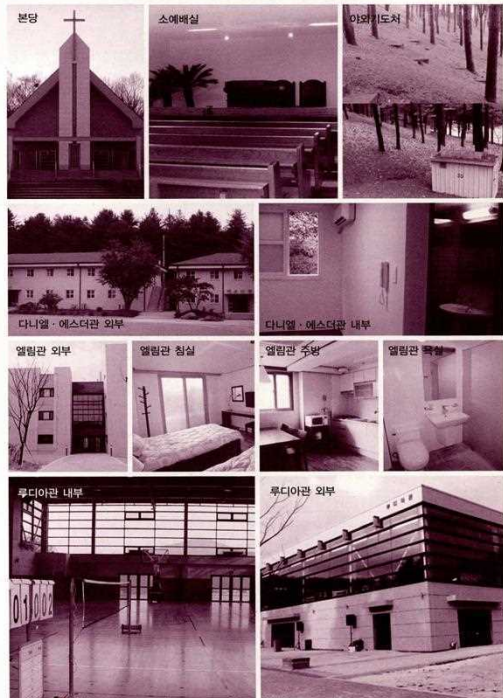
숙박시설

다니엘·에스터관 리모델링을 마친 다니엘관 및 에스터관은 이용자들의 편안한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냉난방 및 편의시설을 완벽하게 갖추어 이용자들의 섬의 장소로 적합하다.

엘리관 최근에 개관한 콘도식 숙박시설로 취사가 가능하며 온가족이 함께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소규모 모임을 위한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체육 및 다목적시설

루디아관 엘리관과 함께 최근 개관한 체육 및 다목적시설이다. 실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체육활동이 가능하며 중대형 집회(수련회)도 가능하다. 원목으로 된 바닥이 이용자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안한 느낌을 준다. 단 바닥이 원목인 관계로 시설 이용 시 운동화를 신어야 한다.



십자가의 길

그리스도의 희생

‘그리스도의 희생’(본 2:14)의 말씀이 지난 찬양예배(2008.12.14.) 시에 선포되었다. 사순절에나 어울릴 것 같은 말씀이었다. 12월에는 성탄절이 있기에 구주 탄생에 대한 기도와 기쁨에 관한 설교가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희생’의 말씀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에게 큰 은혜와 도전이 되었다. 마상 절건과 기쁜 크리스마스가 아닌, 크리스마스? 왜 기쁨이고, 기적이고, 은총의 날인지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결실하게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본 2:14)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계셨다. (사 53:4~6) 그럼에도 예수님은 묵묵히 순종하셨다. (행 8:32) 십자가를 통해서만 죄로부터의 속량이 가능했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음을 택하셨던 것이다. (로 10:17-18) 어느 인간이 능히 그런 고생을 있었지만 말이다. (히 5:6-8)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모든 불법에서 속량을 받았다. (사 6:4-5) 더 나아가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사 1:16-18 ; 요절 1:7) 이와 같은 놀라운 은총의 시작이 크리스마스이다. 한 마디로 크리스마스는 희생의 절기가 내려진 날이다. 이것은 분명 영벌에 처할 죄인들에게 내려진 기적이다.

크리스마스는 끝났다. 동시에 2008년도 저물어가고 있다. 지금 우리는 많은 근심과 걱정을 하고 2009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음을 기억하자. 기적의 은총을 받은 주님의 자녀가 바로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스도의 희생 즉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인 불법의 그림자는 이제 사라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자. (시 119:9)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끝마침 선한 일을 결실하게 하는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 (골 5:16-17, 25-26) 선한 일, 즉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자. 복음이 함께 하신다. (행 10:36 ; 행 21:10) 2009년 잘 시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골 1:6) 아멘.

내 영혼이 주를 찬양



2009년 예배찬송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 (찬송가 35장)

2009년 예배찬송은 찬송가 35장 <큰 영화로신 주>이다. 이제 주일예배에 온 성도들은 한 마음으로 <큰 영화로신 주>를 찬송하며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것이다. 예배의 중심은 성삼위 하나님이다. 예배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인간들이지만 결국 초점은 하나님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성령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끄신다. 이처럼 신령한 예배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큰 영화로신 주 이 곳에 오셔서 이 모든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간구에 이어 기도와 드림 그리고 설교의 핵심이 무엇인지 밝힌다.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만백성 듣게 하소서.” 그리고 교제와 증거와 선교 등 <큰 영화로신 주>에는 예배의 모든 요소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 찬송시는 벤자민 프랜시스(1734-1799) 목사가 썼다. 마태복음 18:20을 배경으로 한 이 찬송시는 원래 프랜시스 목사가 자신이 시무하던 교회의 헌당식 때 처음 사용하려고 작사하였다. 그 후 수정, 전파되는 과정에서 원래 6절이었던 이 찬송시가 4절로 축약되어 오늘날과 같이 되었다. 작곡자인 루이스 에드슨(1748-1820)은 미국의 찬송작곡가로서 평생을 순회 전도자가 되어 복음을 전했다.

2009년에도 변함없는 그리스도의 은총이 예배마다 충만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놓치지 않는다면 말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들을 통해서 세워질 주님의 교회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큰 영화로신 주>를 하나님께 드리지. “주 구원하신 능력을 주 구원하신 능력을 늘 높여주시 주소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12월 충현 기도의 창

① 교회의 방패와 상급(창 15:1)이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영원의 세계(요 18:36)를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처소(엡 2:22)가 되게 하소서.

- ② 위임목사님의 사역을 성령께서 통치하심으로
신자들의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여 주시며 영
육을 강건하게 하소서.
- ③ 모세 위원회와 산하 부서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
가 이온성과 같은 교회(마 16:18)로 세워지게 하
소서.

④ 모든 성도들이 한 영혼을 위한 예수님의 피로

⑤ 1:1 전도와 총력 교회주변 전도(매월 둘째 주 · 토요일)를 통하여 우리 이웃과 교회주변의 영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하소서.

⑥ 매주일 등록하는 새가족들이 저마다 보혈의 복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시고 세상에 아름다운 찬양대를 통하여 금요찬양집회가 새가족의 은총으로 풍성하게 하소서.

[illegible]

2] 중현의 재단(유지·동산·복지)들이 복합을 전하는 데 하나되며 현재 추진 중인 양로원, 낚골 시설 건립과 모든 사역이 은혜 중에 진행되게 하소서.

24시간 연속 기도실 : 본당 113호

교회 오시는 길

기도원집회 안내 (☎ 031-766-5425)

구분	시간	차량
최초집회	오전 11:00	오전 10:00 분당 앞 출발
근교참가	저녁 10:30	근교참가집회 후 분당 앞 출발

오전 11시에 드리는 주일 예배 후에는 영어, 중국어, 일어 및 수화, 오후 1시에 드리는 주일 저녁 예배는 스페인어, 중국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힌디어, 인도네시아어 등 다양합니다.

Simultaneous translations in English, Chinese, Japanese and Sign Language are available at the Eloquent Ock Worship Service, and Sri Lankan, Chinese, Mongolian, Russian, Hindi and Indonesian are available at the Ock Ock Worship Service.

분	시간	장 소
2부	오후 12:15	제2교육관 2층
1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7호
2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407호
3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307호
4부	오후 12:30	제1교육관 503호
장 부	오후 12:15	갈 립 리 홀
	오전 11:00	북원리 지하1층
다 부	오전 9:00(학생) 오후 8:30(학인)	제2교육관 1층
부	(주) 오후 8:30 오후 6:00 (금) 저녁 6:30 저녁 9:00	제1교육관 1층
양육부	오후 12:10	배 다 리 홀
제1선교부	오후 12:30	야 면 홀
민인기	주간교육	제1교육관 107호

심 · 기 · 는 · 분 · 들

[illegible]